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학술적 연구방법론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서울: 민속원, 2015

송 방 송

1. 머리말: 집필 동기 및 서평에 임하는 기초
2. 독창성의 관점에서 조명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3. 국제학술올림픽의 출품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4. 맺는말: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훌륭한 연구성과에 주목하자

www.kci.go.kr

1. 머리말: 집필 동기 및 서평에 임하는 기초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의 삶을 즐기면서 살려고 노력한다. 그렇지만 살다가 보면 즐거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일도 왕왕 일어난다. 2015년 시작과 더불어 한국음악학 제3세대들의 여러 연구성과물을 받아보는 재미가 적지 않다는 즐거움이 그것이다. 더구나 서평을 부탁한 후학들의 연구성과, 예컨대 『한국춤사』 및 『세종대왕의 봉래의』에 대한 두 서평¹⁾을 통해 후학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가감하지 않고 해주는 재미가 이 서평자의 노년 삶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주었다.

최근 서울대 음대 국악과의 김우진(金宇振) 교수가 보낸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이라는 단행본은 학술적으로 매우 자랑스러운 후배 중 또 한 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가 되었다. 책을 받자마자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즐겁게 통독할 때, 이 서평자가 예전에는 미처 몰랐던 많은 지식을 배우고 깨우쳤던 탓이다. 우리 음악사연구에 평생 몰두했던 본인은 역사적 연구방법론 이외 다양한 연구방법론에 주목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므로 이 단행본의 통독을 통해서 늦게나마 많이 배우고 깨우쳤음을 솔직하게 고백한다. 이 서평의 제목을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학술적 연구방법론”이라고 잡은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 서평의 서술 순서는 먼저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독창성이 무엇이었기에 이 서평자가 여러 지식을 배우고 깨우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하여 내용 위주로 살펴보는 것으로 시작하련다. 다음으로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하기 위한 목표를 염두에 둘 때,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다시 말해서 학술적 국제규칙에 따라

1) 『한국춤사』(서울: 보고사, 2015)의 서평: “한국무용사학의 새 지평을 연 연구성과물”은 무용기록학회(舞踊記錄學會)의 학회지에 발표할 예정이고, 『세종대왕의 봉래의』(서울: 민속원, 2015)에 서평: “세 학문간의 모범적 연구결실을 축하한다”는 국립국악원에서 2015년 말 간행 예정의 『國樂院論文集』에 기고 중임.

서 무엇을 어떻게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것인가를 점검할 것이다.

늘 해왔듯이 학술적 개론서나 연구서 또는 연구논문이 갖추어야 할 기본 속성(屬性), 곧 독창성(獨創性: originality)·정확성(正確性: accuracy)·검증성(檢證性: verification)·일관성(一貫性: consistency)·평이성(平易性: readability)의 관점에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조명해볼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저자가 얼마나 국제규칙 또는 국제관례에 충실했는지가 자연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 단행본을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할 수 있을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에 관한 서평의 객관성(客觀性: objectivity)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2. 독창성의 관점에서 조명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모방(模倣)하지 않고 자기 혼자의 힘으로 비로소 생각해 내거나 처음으로 만들어냄”이 독창(獨創)의 낱말 풀이이고, “독창하려는 성향이냐 성질”이 독창성이라고 『국어대사전』²⁾에서 낱말을 풀이하였다. 따라서 우리 음악학계에서 출간된 한국음악학(Korean musicology) 관련 기존 음악문헌의 내용에 언급되지 않은 새로운 견해나 주장을 이 단행본에 담았기 때문에, 본 서평자는 그런 새 견해와 주장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첫째 독창성으로 꼽았다. 무엇이 김우진 교수의 새로운 견해와 주장인가를 사례별로 제시한 후 하나씩 점검하도록 하자.

<인용 1-1> 연구 방법[연구방법]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위 내용에서 제시한 수단은 목적지에 가장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다. …(중략)… 위 인용문에는 제주도 에 가는 방법을 비행기라고 제시하고 있지만, 교통수단이 비행기

2)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61), 751.

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천이나 부산·목포 등지에서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먼 훗날 제주도까지 해저터널이 생기거나, 연륙교가 건설된다면, 열차나 자동차로 갈 수도 있게 될 것이다.³⁾

<인용 1-2> 『한국음악사연구』(경산: 영남대출판부, 1982)와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서울: 음악춘추사, 1994)에서는 연구 방법[연구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정작 방법론의 종류만 나열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 소략하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하여 음악학 연구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을 정리·소개하고자 하며, 이 방법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이 개발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⁴⁾

<인용 1-1>의 서술내용은 이 서평자의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1994)의 72쪽에서 인용한 후 저자의 견해, 곧 목적 달성을 위한 여러 수단에 대한 자신의 논평을 제시한 것이다. 제주도에 이르기 위해 저자가 제시한 여러 방법은 한국음악학 제2세대인 이 서평자의 학술적 한계성을 한층 보완한 제3세대의 새로운 아이디어(idea)이다. 더욱이 <인용 1-2>에서는 이 서평자의 학술적 한계성을 김우진 교수가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했고, 자신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제2세대의 총론적(總論的) 서술의 연구방법론 관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3세대의 김우진 교수가 각론적(各論的) 내용을 서술하여 한 차원 높게 보충하려는 것이 <인용 1-1, 2>의 핵심이다. 이렇듯 제2세대의 학술적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제3세대의 새로운 방법론을 정리하고 소개하고자 하는 저자의 뜻이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첫째 독창성으로 꼽히는 근거가 된다.

3)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서울: 민속원, 2015), 17. 네모 괄호([]) 관련 국제규칙을 뒤에서 설명할 것이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는다.

4) 위의 책, 17-18.

김우진 교수가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정리하고 소개하는 것은 제3장 양적(量的)·질적(質的) 방법 논의 때 논리학(論理學)과 사회과학에서 개발한 연구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즉 실증적(實證的) 연구방법으로 흔히 알려진 양적 연구방법 및 해석적(解釋的) 연구방법 곧 질적 연구방법을 다음의 <인용사례 2>에서처럼 상세히 언급하였다.

<인용 2> 양적[量的] 연구 방법[연구방법]과 질적[質的] 연구 방법 [연구방법]은 단독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보완할 수도 있다. 양적 연구 방법[연구방법]에는 통계적 (statistical) 방법, 연역적(deductive) 방법, 가설연역법(假說演繹法) 등이 있다. 질적 연구 방법[연구방법]에는 귀납적(inductive) 추리, 역사적(historical) 방법, 비평적(critical) 방법 기술적(descriptive) 방법, 문헌적 연구 방법, 현지조사 방법, 민속지적 연구 방법[연구 방법], 거울상(경상鏡像) 방법 등이 있다.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모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는 비교(comparative) 방법, 분석적 (analytical) 방법이 있다. 양적 연구 방법[연구방법]과 질적 연구 방법[연구방법]은 둘 중 하나만 쓰이기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쓰이기도 하며, 또 다른 여러 방법이 사용되기도 한다.⁵⁾

제4장 추론적 방법에서 김우진 교수는 논리학에서 많이 다루는 귀납법(歸納法: inductive method)과 연역법(演繹法: deduction)을 설명할 때, 자신의 논문⁶⁾을 귀납법과 관련해 예시(例示)했고, 연역법의 설명 때에는 문숙희(文淑姬) 박사의 석사학위논문⁷⁾을 예시하는 치밀함을 보여주었다. 귀납법과 연역법의 논의 때에는 저자가 이숙희(李淑姬) 박사의 논문⁸⁾을 사례(事例)로 들었다. 그리고 가설연역법(假說演繹法: hypothetico-

5) 위의 책, 42.

6) 김우진, “거문고 육보 체계에 관한 통시적 고찰,”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06), 6-13, 364.

7) 문숙희,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 석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1986), 1-5.

deductive model)을 설명할 때에는 허익수 박사의 학위논문⁹⁾을 예시하였다. 이렇듯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연구방법의 원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당 논문을 사례로 예시했으므로, 이 서평자는 바로 이 점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둘째 독창성으로 꼽았다.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둘째 독창성은 제4장 이외에서도 발견되었다. 즉 제5장 종적·횡적 방법에서 통시적(通時的: 역사적) 접근방법의 논의 때, 김우진 교수는 언어학자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 1857-1913)가 사용한 통시적 접근방법(diachronic approach)과 관련해 김성혜¹⁰⁾(金聖惠) 박사 및 권도희¹¹⁾(權度希) 박사의 두 학위논문을 예시하였다.

공시적(共時的: 체계적) 접근방법의 논의 때에는 한만영(韓萬榮) 교수의 동해안(東海岸) 민요선법 관련 논문¹²⁾을 사례로 인용하였다. 그리고 악곡 복원 및 재현 관련 논의 중에는 외국학자 조나단 컨디트(Jonathan Condit)의 영어논문¹³⁾까지 사례로 들었다.

다음으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셋째 독창성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한 간결한 문장, 그리고 서술내용을 도표로 적절히 요약한 점에서 발견된다. 학술연구서에 나오는 특수한 학술용어를 쉬운 말로 풀이해주거나 독자들의 이해를 위하여 난해하지 않게 서술한 것, 곧 평이성(readability)을 갖추어야 함은 학술연구서의 속성 중

8) 이숙희, “『악학궤범』 속악 7조 기본음(궁)의 성립 배경,” 『韓國音樂史學報』 48 (서울: 韓國音樂史學會, 2012), 256.

9) 허익수, “백낙준 거문고산조의 재구성,”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13).

10) 金聖惠, “三國時代 新羅音樂文化史 研究,” 박사학위논문, (釜山: 東亞大學校, 2005), 4-5.

11) 권도희, “20세기 전반기의 민속악계 형성에 관한 음악사회사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2003), 6-7.

12) 韓萬榮, “太白山脈 以東地方의 民謠旋法의 研究,” 『藝術論文集』 12 (서울: 대한민국 예술원, 1973), 121-47.

13) Jonathan Condit, “Two Song-Dynasty Chinese Tunes Preserved in Korea,” *Music and Tradition: Essays on Asian and Other Musics*, Presented to Laurence Pick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1-39.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한 문장과 적절한 여러 표들을 이 서평자는 이 단행본의 셋째 독창성으로 꼽았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다음의 <인용 3>에 제시할 것이다.

<인용 3-1> 논리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양적量的(정량定量) 연구 방법[연구방법]은 대상의 양量(quantity)을 바탕으로 분석·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계량화[計量化]를 통한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를 밝혀내는 방법으로 실증적[實證的] 연구 방법[연구방법]이라고 불린다. 사회과학 분야에서 객관적 사실, 이론을 경험적으로 증명, 객관적 관찰이 가능한 외부적 속성[屬性]에 의한 정의 등을 통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계량화된 변수만큼 객관적인 것은 없을 것이다. ...14)

[표 1] 양적 연구방법 단계

연역법						
주제 설정 (문제인식)	가설 설정	연구 설계 (개념정의 /자료수집계획)	자료수집 (질문지법 /실험법)	자료 분석 (계량화)	가설 검증	결론 도출 (법칙/일반화)

<인용 3-2> 논리학과 사회과학 분야에서 질적質的(정성定性) 연구 방법[연구방법]은 대상이 갖고 있는 질質(quality)에 대한 내용을 관찰하여 논증하는 방법이다. 질적 연구에 필요한 자료는 문헌 조사·현지 조사(관찰·대담) 등을 통하여 얻게 된다. 이 방법은 통시적[通時的]인 역사적 연구를 비롯하여 생애사(전기傳記)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 이론 연구, 민족지적(문화기술지)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질質과 양量은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지만, 오늘날의 연구에서 질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양적 연구 방법[연구방법]을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15)

14) 김우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26-27.

[표 2] 질적 연구방법 단계

귀납적 방법				
주제 설정 (문제 인식)	연구설계 (개념 정의)	자료 수집	자료 분석·해석 (정리·논증)	결론 도출 (법칙/일반화)

간결한 문장과 서술내용을 알기 쉽게 도표로 정리한 사례는 위에 예시한 두 사례 외에도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제8장 구조주의 방법에서 소쉬르(Saussure)의 언어학에 나오는 랑그(langue)와 파롤(parole)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개념을 정리한 도표¹⁶⁾도 그렇고, 제9장 문학적 방법에서 한시(漢詩)의 결구법(結句法)과 진양조의 4각 구조를 비교해 정리한 도표¹⁷⁾는 또 다른 사례이다.

학술연구서에 나오는 각주(脚註: footnote)의 기능은 두 가지이다. 첫째 기능은 논지(論旨)의 전거(典據)를 밝히는 것이고,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필요한 설명을 따로 떼어서 제시하는 것이 각주의 둘째 기능이다. 이러한 각주의 두 기능을 김우진 교수가 적절하게 잘 구사한 점은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넷째 독창성으로 꼽힌다. 대부분의 학술연구서에서 각주의 첫째 기능은 대체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둘째 기능을 적절히 사용하는 사례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을 이 서평자가 감안한 뜻이다.

<인용 4-1> 면접법[面接法]의 상대 개념으로 질문지법(質問紙法, questionnaire method)이 있다. 조사자가 미리 작성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대담을 유도[誘導]하는 방법으로 면접법에서 발전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연구결과를 미리 설정하고 질문 사항을 만들어야 하므로, 질문지를 만드는 과정이 어렵지만, 일시에 조사할 수 있

15) 위의 책, 31.

16) 위의 책, 149의 <표 1> 참조.

17) 위의 책, 159의 <표 2> 참조.

고, 비교적 빨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에 결과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음악 현지 조사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질문지법』, 『두산세계백과사전』 제24권, 두산동아, 187쪽.¹⁸⁾

<인용 4-2> 필자가 청음을 처음 경험한 것은 국립국악원 부설 국악사양성소[國樂士養成所] 입학시험이었다. 1966년 말경으로 기억되는데, 어두운 조명 아래 한 사람씩 수험생이 입장하면, 시험관(김용진[金溶鎭] 한양대 명예교수)이 피아노로 두 음을 치고, 어느 음이 높은가를 묻는 방법이었다. 강원도 묵호국민학교(현 동해시 묵호초등학교)를 다니며, 오르간 소리에만 익숙했던 나는 어느 음이 높은지 알 수 없었다. 그 이유는 피아노의 음색이 나에겐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은 채보에 대한 경험이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2학년(이론전공) 재학 당시 LP음반 몇 장을 주면서 채보해오라는 것이 전공수업의 과제였고, …(중략)… 이렇게 박녹주[朴綠珠] 창 홍보가의 박타는 대목부터 약 30분간의 소리를 혼자 채보하여 학기말에 제출할 수 있었다.¹⁹⁾

<인용 4-1>은 면접법(面接法)의 설명 때 김우진 교수가 본문의 흘러가는 문맥(文脈)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필요한 내용을 각주에 따로 제시한 보충 설명이다. 그리고 <인용 4-2>는 음의 색깔 곧 음색(音色) 및 채보 관련 저자의 경험담을 각주에 서술한 것이다. 이 두 장황한 설명을 본문에 넣을 경우 논지의 흐름 곧 문맥을 방해하기 때문에 각주에 넣은 것은 김우진 교수의 적절한 처리라고 이 서평자는 보았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넷째 독창성으로 꼽았다.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다섯째 독창성 관련 다음의 <인용 5>를 제시한 후에 인용문 중에 무엇이 독창성의 근거인지에 대하여 상론할 차례이다.

18) 위의 책, 92의 각주 26.

19) 위의 책, 93의 각주 32.

<인용 5> 가야금산조의 미가 담겨 있는 ‘최고 펀다’는 것을 음악적으로 규명[구명]하기 위하여, 최옥산[최옥삼]류 가야금산조의 보유자로서 중요무형문화재 기능[예능]보유자 23호인 함동정월(1917~)[1917-1995]을 대상으로 정하여 그가 갖고 있는 최고 펀다는 것의 의미를 조사하고 …(중략)… 한 마루는 3부분으로 나뉘어졌는데, 그 첫째는 중심 잡는 부분, 둘째는 죄는 부분, 셋째는 푸는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나뉜다].²⁰⁾

서구학술계에서 통용되는 국제규칙 중 네모 괄호([])의 사용법은 우리 음악학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김우진 교수가 네모 괄호의 사용법을 적절히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인용 5>의 사례를 보고 이 서평자는 아주 반가웠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간행된 여러 연구서의 서평을 발표해오면서 네모 괄호 관련 국제규칙을 이해하고 적용한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에서 처음으로 발견했기 때문이다. 국제학술계의 견지에서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 서평자는 국제규칙에 따른 이번 사례를 이 단행본의 다섯째 독창성으로 꼽았다.

학술연구서가 갖추어야 할 참고문헌과 색인(索引) 곧 찾아보기를 고루 갖추었다는 데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여섯째 독창성을 찾았다. 저자가 서술과정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한 참고문헌 및 중요한 학술용어들이 참고문헌과 찾아보기에 깔끔하게 잘 정리되었다. 단, 참고문헌과 찾아보기에서 발견되는 옥에 티에 관해서는 다음 항목에서 거론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독창성이 여섯 가지라고 지적한 바를 요컨대, 첫째 독창성은 한국음악학 제2세대의 총론적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3세대의 선두주자 김우진 교수가 각론적 내용을 서술했

20) 위의 책, 51.

다는 점이고, 둘째 독창성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연구방법의 원론적 설명과 더불어 해당 논문을 예시했다는 사실이다. 셋째 독창성은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한 문장과 서술내용을 도표로 적절히 요약한 점이다. 각주의 두 번째 기능을 사용하여 문맥의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본문과 떼어서 따로 각주에 처리한 것을 넷째 독창성으로 보았고, 국제학술계에서 통용되는 규칙 중 네모 괄호([])의 사용법을 김우진 교수가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섯째 독창성으로 꼽았다. 여섯째 독창성은 학술연구서의 필수적 참고문헌과 찾아보기를 고루 갖춘 점이라고 언급하였다. 앞으로 한국음악학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이런 독창성을 후학들이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고서 창조적으로 더욱 발전·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3. 국제학술올림픽의 출품을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한국음악학의 발전은 건전한 비평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평소에 생각했기 때문에, 이 서평자는 두 은사님을 포함한 제1세대의 연구성과²¹⁾를

21) 李惠求 譯, 『국역악학궤범』(1979); 李惠求 著, 『韓國音樂論叢』(1976); 成慶麟 著, 『韓國音樂論攷』(1976); 張師勛 著, 『時調音樂論』(1973) 및 『韓國音樂史』(1976); 崔彰鳳 編, 『韓國의 民俗藝術』(1978); Park Chong-Hwa (ed.), *Survey of Korean Arts: Folk Arts* (1974)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樂史研究』(경산: 영남대출판부, 1982), 647-88에 수록된 글 참조. 張師勛 著, 『國樂史論』(1984) 및 『國樂大事典』(1984)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樂學序說』(서울: 세광음악출판사, 1989), 280-323 참조. 李惠求 著, 『韓國音樂論攷』(1995)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한국음악학의 방향』(서울: 도서출판 예술, 1998), 247-49 참조. 宋芳松,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기: 李惠求 역주, 『신역악학궤범』(2000),” 『韓國音樂史學報』 43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9), 299-304 참조. 宋芳松, “傳統音樂과 舞踊에 삶을 바친 한 藝術家의 自敘傳: 金千興, 『心韶金千興舞樂七十年』,” 『國樂院論文集』 8 (서울: 국립국

비롯해 제2세대의 여러 학술서,²²⁾ 그리고 제3세대의 연구서에 대한 서평²³⁾을 발표했고, 이 서평도 그런 맥락에서 노력한 성과물 중의 하나이다. 이렇게 서평을 지속해온 까닭은 한국음악학의 연구성과물을 국제 학술올림픽에 출품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표 달성의 당면과제 때문이

악원, 1996), 281-97 참조.

- 22) 韓萬榮 著, 『佛敎音樂研究』(1981)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樂史研究』(1982), 689-704 참조. Robert C. Provine, *Essays on Sino-Korean Musicology: Early Sources for Korean Ritual Music* (1988)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韓國音樂學序說』(1989), 324-31 참조. 李康淑 著, 『한국음악학』(1990); 魯棟銀 著, 『金順男 그 삶과 예술』(1992); 白大雄 지음, 『다시보는 판소리』(1996); 노동은, 『한국민족음악현단계』(1989) 및 『한국근대음악사』(1995); 『曹淳子女唱歌曲集』(1989)에 대한 서평 및 음반평은 宋芳松, 『한국음악학의 방향』(1998), 315-30(『한국음악학』), 331-36(『金順男 그 삶과 예술』), 365-86(『다시보는 판소리』), 233-45(『한국민족음악현단계』), 251-69(『한국근대음악사』), 271-77(『曹淳子女唱歌曲集』) 참조.

李在淑 外, 『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1998) 및 『동양음악』(1998)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朝鮮朝音樂史研究』(서울: 민속원, 2001), 589-624(『조선조 궁중의례와 음악』), 625-42(『동양음악』) 참조. “우리음악의 새로운 이해를 위한 참신한 입문서: 全仁平,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음악』(2007),” 『서평문화』 67 (서울: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2007), 171-78 참조,

- 23) 孫泰龍 지음, 『한국음악사의 큰별』(1994) 및 金鍾洙 역주, 『譯註增補文獻備考』(1994)에 대한 서평은 宋芳松, 『한국음악학의 방향』(1998), 387-94(『한국음악사의 큰별』), 395-414(『譯註增補文獻備考』) 참조. 宋芳松, “조선시대 음악의 소중한 그림 자료: 徐仁華 등, 『조선시대 진연·진찬·진하병풍』(2000),” 『國樂院論文集』 13 (서울: 국립국악원, 2001), 189-95쪽; 宋芳松, “韓國音樂學 제3세대의 훌륭한 연구성과: 宋惠眞, 『한국악기』(2001),” 『韓國音樂史學報』 28 (서울: 한국음악사학회, 2002), 277-86; 宋芳松, “韓國古代音樂史의 모범적 研究成果: 金聖惠, 『新羅音樂史研究』(2006),” 『코기토』 61 (부산: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07), 289-93에 발표한 서평 참조.

『낭만음악』(서울: 낭만음악사, 1998 및 1999), 통권41호 및 통권42호, 그리고 『음악과 민족』(부산: 민족음악학회, 1999), 제17호에 발표한 宋芳松, “서울의 曉星女大와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學位論文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1),” “나무와 숲을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 學位論文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2),” 그리고 “무대공연에서의 연출가와 지휘자: 學位論文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3),” 이상 세 편의 서평은 이 서평자의 논문집 『朝鮮朝音樂史研究』(서울: 민속원, 2001), 642-999에 수록됨.

었다. 즉 외국유학 때 본인이 습득한 학술 지식에 의거하여 그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사명감(使命感)을 이 서평자는 결코 외면할 수 없었다. 다시 말하자면, 『장자』(莊子)의 「춘추편」(春秋篇)에 나오는 ‘정중지와’(井中之蛙), 곧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로부터 한국음악학의 수준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일념 탓이었다.

상식적으로 세계올림픽의 경기규칙을 모르는 선수를 올림픽경기에 출전시킬 수 없다. 그렇듯이 한국음악학의 성과물을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국제규칙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이 음악을 연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학술올림픽의 국제규칙 관점에서 조명할 때,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각주형식 및 참고문헌 형식에서 무엇이 수정·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인가를 점검한 후, 이어서 기타사항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련다.

1) 각주 형식에서 발견되는 문제점

세계학술계의 동양학(東洋學: Asian studies) 분야 및 서구음악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국제규칙과 관련해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각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한 후에 하나씩 거론할 것이다. 먼저 아래의 <사례 1>에서 발견되는 각주 형식의 여러 문제점에 주목하자. 단, 시간과 지면의 절약을 위해 사용한 <사례 1-1>의 17n2는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17쪽의 각주 2를 생략해서 기재한 것임을 밝혀둔다.

<사례 1-1> 17n2: 송방송,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음악춘추사, 1994, 72쪽.

<사례 1-2> 17n4: 송방송, 「한국음악학의 연구계획서 작성법」,

『한국음악사연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2, 125쪽.

<사례 1-3> 18n5: 김용규, 『설득의 논리학』, 웅진싱크빅, 2007, 37쪽.

<사례 1-4> 20n3: 성경린, 『조선음악독본』, 조선아동문화협회, 1947.

<사례 1-5> 21n8: 장사훈·한만영, 『국악개론』, 한국국악학회, 1975.

<사례 1>의 다섯 사례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각 단행본의 출판정보에 있다. 즉 첫째 문제점은 모든 책의 출판지명을 김우진 교수가 생략한 점이다. 둘째 문제점은 원래의 한자로 쓰인 책명을 저자가 임의로 바꿔 표기한 한글 책명에서 발견된다.

한국 서적의 대부분이 서울에서 출간됐기 때문에, 출판지명을 생략했다고 변명할지는 모르겠다. 그렇다면 <사례 1-2>에 나오는 이 서평자의 『한국음악사연구』(韓國音樂史研究)는 서울이 아닌 경상북도 경산(慶山)에서 출판된 사실을 모르는 독자들이 많거니와, 그래서 서울에서 출간한 책으로 오인(誤認)하기 쉽다. 더욱이 대한민국의 서울보다 널리 알려진 미국의 뉴욕이나 프랑스의 파리 또는 영국의 런던에서 출간된 책의 각주 및 참고문헌에 New York, Paris, London이라는 출판지명을 모두 표기하는 국제규칙에 어긋났다. 따라서 이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그리고 학술서의 내재적 속성 중 하나인 정확성(accuracy)의 관점에서 볼 때에도 출판지명의 생략은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하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검증성(verification)의 견지에서 그 문제를 조명할 때 독자들이 검증(檢證)하기 어렵도록 만들 뿐 아니라, 출판지명의 생략은 독자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도 고려하였다. 실은 정확성과 검증성은 동전의 양면관계이다.

정확성의 관점에서 보면, 본래의 한자 책명을 한글로 바꾸어 적는 것은 국제규칙에 벗어났다. 근래 한글 위주 본문의 서술 때에는 저자들이 한글세대를 위하여 『한국음악사연구』(韓國音樂史研究) 또는 『조선음악독본』(朝鮮音樂讀本), 『국악개론』(國樂概論)처럼 책명의 한글 뒤에 한자

를 괄호 속에 넣어서 표시한다. 그러나 각주 및 참고문헌에서는 원래의 책명대로 『韓國音樂史研究』, 『朝鮮音樂讀本』, 『國樂概論』으로 적어야 국제규칙에 부합한다. 책명처럼 인명의 경우도 본문에서는 송방송(宋芳松), 성경린(成慶麟), 장사훈(張師勛), 한만영(韓萬榮)으로 표기하지만, 각주 및 참고문헌에서는 宋芳松, 成慶麟, 張師勛, 韓萬榮으로 적어야 옳다.

세계학술계의 국제규칙에 따르자면, 출판정보(출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를 괄호 속에 넣어 책명 뒤에 놓는 순서가 원칙이다. 그리고 책명과 출판정보 사이에 넣은 쉼표(,)는 국제규칙에 맞지 않는다. 이제 상기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아래의 <보기 1>과 같다.

<보기 1-1> 17n2: 송방송,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서울: 음악춘추사, 1994), 72쪽.

<보기 1-2> 17n4: 宋芳松, “韓國音樂學의 研究計劃書 作成法,” 『韓國音樂史研究』(慶山: 嶺南大學校出版部, 1982), 125쪽.

<보기 1-3> 18n5: 김용규, 『설득의 논리학』(서울: 웅진싱크빅, 2007), 37쪽.

<보기 1-4> 20n3: 成慶麟, 『朝鮮音樂讀本』(서울: 朝鮮兒童文化協會, 1947).

<보기 1-5> 21n8: 張師勛·韓萬榮, 『國樂概論』(서울: 韓國國樂學會, 1975).

학술논문이나 석·박사학위논문의 경우에 어떤 옥에 티가 각주에서 발견되는지를 아래 <사례 2>의 다섯 가지에 의거하여 점검하도록 하자. 단,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반복될 경우에는 반복하지 않는다. 아래의 다섯 사례에서 점검할 사항은 첫째로 박사학위논문 관련 여러 문제점, 둘째로 번역서의 기재 방법, 그리고 셋째로 반복되는 학술정보의 처리 문제, 이상 세 가지로 요약된다.

- <사례 2-1> 28n7: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7, 23-24쪽.
- <사례 2-2> 34n19: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1997, 25쪽. 각주 42.
- <사례 2-3> 32n14: John W. Creswell, 조홍식, 정선옥 역,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학지사, 2010.
- <사례 2-4> 29n9: 장사훈, 『농현법의 연구』, 『국악논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453-518쪽.
- <사례 2-5> 30n10: 장사훈, 『농현법의 연구』, 『국악논고』, 1971, 468쪽.

상기 박사학위논문 관련 문제점은 1) 박사논문에 사용한 약물, 2) 박사학위를 수여한 학교명의 생략, 그리고 3) 반복 시 출판정보의 처리 문제, 이상 세 문제로 요약된다.

우선 박사학위논문 제목의 좌우에 김우진 교수가 책명에 사용한 겹낫표(『』)는 학술계의 관례에 위배된다. 그 까닭은 박사학위논문은 단행본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한 편의 논문이므로 논문명의 좌우에 쓰이는 약물 곧 겹따옴표(“ ”)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국제규칙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논문명 좌우에 홑낫표(『』)를 사용하지만, 국제규칙에 따르자면 겹따옴표(“ ”)의 사용이 원칙이다.

조영배(趙泳培)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여한 기관은 경기도 성남(城南)에 있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韓國精神文化研究院: 현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속 한국학대학원(韓國學大學院)이다. 그렇지만 박사학위를 수여 대학원명을 생략한 것이 문제이다. 국제규칙에 따라 출판정보 중 출판지명을 밝혀야 하듯이, 대학원명의 표기도 필수적이다.

그리고 끝으로 같은 논문의 반복 인용 시에는 논문명과 쪽수만 제시하면 된다. 이것은 마치 단행본이 반복 사용될 경우 출판정보를 생략하는 경우와 같다.

둘째로 번역서의 기재 순서는 역자명을 먼저 적고, 괄호 속에 원 저자

명을 표기하는 것이 국제규칙이다. 따라서 김우진 교수가 원서의 번역서를 참고했음은 명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해야 옳다.

셋째로 반복되는 학술정보의 처리 문제는 앞서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때 언급했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반복해서 저자에게 국제규칙을 따르도록 이 서평자가 권고하는 까닭은 앞서 이미 언급했듯이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시키기 위해서이다. 이제 여러 지적사항을 수정한 모범답안을 아래의 <보기 2>에 제시하였다.

<보기 2-1> 28n7: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 학원 박사학위논문, 1997), 23-24쪽.

<보기 2-2> 34n19: 조영배, “제주도 민요의 음악양식 연구,” 25쪽의 각주 42.

<보기 2-3> 32n14: 조흥식·정선옥 역(John W. Creswell 저),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서울: 학지사, 2010).

<보기 2-4> 29n9: 張師勛, “弄絃法の 研究,” 『國樂論攷』(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453-518쪽.

<보기 2-5> 30n10: 張師勛, “弄絃法の 研究,” 『國樂論攷』, 468쪽.

요컨대, 각주 형식에서 발견되는 몇몇 옥에 티를 제거하면,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시킬 수 있다. 비록 각주 형식에서 발견되는 옥에 티로부터 저자가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겠지만, 이 서평자는 그런 옥에 티가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뛰어난 독창성의 그늘에 묻혀버린다고 생각한다. 아무리 맛이 좋더라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을 김우진 교수에게 상기시키고 싶다.

2) 참고문헌 형식은 국제규칙과 관례에 부합하는가?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국제규칙에 의거하여 조명할 때, 참고문헌 형식에 관련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차례이다. 이 단행본에서 참고한 연구서의 사례를 먼저 제시하고 점검한 후, 논문 사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어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단행본의 한글 책과 영문서의 경우에 국제규칙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 것인지를 이 단행본 참고문헌의 322쪽에서 뽑은 아래 <사례 3>의 다섯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단, 각주 형식의 논의 때 거론된 지적사항들은 반복하지 않는다. 예컨대, 원래 한자로 쓰인 저자명이나 책명을 한글로 표기한 잘못 등이 그것이다.

<사례 3-1> 이해구, 『만당속문채록』, 천풍인쇄주식회사, 1985.

<사례 3-2> 장사훈, 『국악개요』, 정연사, 단기4294(1961).

<사례 3-3> Glen Haydon, 서우석 번역, 『Introduction to Musicology』, 『음악학이란 무엇인가』, 청한문화사, 1981.

<사례 3-4> Bruno Nettl, “Music in Primitive Cultur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사례 3-5> Joel Lester, “Analytic Approach to Twentieth-Century Music,” New York and London, WW Norton, 1989.

영문서의 경우 첫째가 외국인명의 표기 문제이고, 둘째는 책명의 표기법 관련 문제이며, 셋째가 잘못된 출판지명, 이상 셋으로 나누어 하나씩 검토하련다.

첫째로 외국인명의 표기법은 각주 형식과 참고문헌 형식에서 서로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각주에서는 이름을 먼저 적고 성(姓)을 뒤에 적지만, 참고문헌에서는 성을 먼저 적고 이름을 뒤에 적는 것이 국제규칙이다. 따라서 각주에서는 Bruno Nettl의 표기 순서가 옳지만, 참고문헌

의 경우 Nettl, Bruno의 순서가 마땅하다. 참고문헌에서 성 및 이름 사이에 쉼표(,)의 사용은 국제관례의 원칙이다.

둘째로 책명 표기에서 무엇이 문제인가? <사례 3-3>에서는 김우진 교수가 영문서의 좌우에 겹낫표(『 』)를 사용한 문체, 그리고 <사례 3-4>에서는 책명 좌우에 겹따옴표(“ ”)를 사용한 문체, 이상 두 가지이다. 국제규칙에 의거하건대 겹따옴표(“ ”)는 논문명의 좌우에 쓰이는 약물이라고 앞서 지적하였다. 영문서의 책명은 명조체(明朝體)가 아닌 이탤릭체(Italic體)로 표기하는 것이 국제규칙이다. 상기한 사례에서 이런 국제관례가 무시됐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하버드(Harvard)대학교의 소재지는 영국의 캠브리지(Cambridge)가 아니고 미국의 매사추세츠(Massachusetts)주에 있는 캠브리지이다.

국역서의 경우 원서의 책명을 넣으려고 할 경우, 국역한 책명 뒤의 괄호 속에 넣으면 된다. <사례 3-3>의 경우 영문서명의 좌우에 겹낫표(『 』)의 사용이 틀리는 이유는 겹낫표(『 』)가 한국책명에 사용되는 약물이기 때문이다. 영문서의 책명을 이탤릭체로 표기하는 것이 국제규칙이라고 앞서 지적하였다. 그리고 출판연도의 표기는 서기(西紀)의 사용이 국제관례의 상식이므로, 단기(檀紀)를 괄호 속에 넣었다. 이제 상기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고 수정한 모범답안이 아래의 <보기 3>이다.

- <보기 3-1> 李惠求. 『晚堂續文債錄』. 서울: 천풍인쇄주식회사, 1985.
- <보기 3-2> 張師勛. 『國樂概要』. 서울: 精研社, 1961(단기4294).
- <보기 3-3> 서우석 번역(Glen Haydon 지음). 『음악학이란 무엇인가』
(Introduction to Musicology). 서울: 청한문화사, 1981.
- <보기 3-4> Nettl, Bruno. *Music in Primitive Cultu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6.
- <보기 3-5> Lester, Joel. *Analytic Approach to Twentieth-Century Music*. New York and London: W. W. Norton & Co., 1989.

다음으로 학술논문 및 박사학위논문의 경우에 국제규칙에 따라 수정되어야 문제가 무엇인지를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참고문헌의 323-27쪽에서 뽑은 아래 <사례 4>의 다섯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순서이다.

- <사례 4-1> 김성혜, 『삼국시대 신라음악문화사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논문, 2005.
- <사례 4-2> 김영운, 「여창 가곡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한국음악연구』 제29집, 한국음악학회, 2001.
- <사례 4-3> 이혜구, 「안악 제3호분의 주악도」, 『한국음악서설』,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2.
- <사례 4-4> 장사훈, 「보허자논고」, 『국악논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1.
- <사례 4-5> 황준연, 「『악학궤범』의 향악조」, 『한국음악사학보』 제11집, 한국음악사학회, 1993.

박사학위를 수여한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생략한 것은 국제규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라고 앞서 지적했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다만, <사례 4-1> 김성혜(金聖惠) 박사의 학위논문을 수여한 동아대학교(東亞大學校)가 서울이 아닌 부산(釜山)에 있다고 아는 젊은 세대들은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도 감안하였다.

<사례 4-2, 3, 4, 5>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발표논문의 시작 쪽과 끝 쪽을 모두 생략했다는 사실이다. 각주에서는 저자가 참고한 특별한 쪽수만을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시작 쪽과 끝 쪽을 표시하는 것이 국제규칙이다. 논문집에 재 수록한 논문의 경우 원래 발표한 학술지를 밝혀주는 것이 정확성(accuracy)의 관점에서 보면 옳다.

가령 이혜구(李惠求) 박사님의 “안악(安岳) 제삼호분(第三號墳)의 주악도(奏樂圖)”는 본래 『진단학보』(震檀學報)에 발표됐던 논문이고, 장사

훈(張師勛) 박사님의 “보허자논고(步虛子論攷)”는 『최현배선생환갑기념논문집』(崔鉉培先生還甲記念論文集)에 발표한 논문을 『국악논고』에 재 수록한 것이다.²⁴⁾ 황준연(黃俊淵)의 논문은 서울이 아닌 경상북도 경산시(慶山市) 소재의 한국음악사학회(韓國音樂史學會)에서 펴낸 『한국음악사학보』(韓國音樂史學報)에 발표한 것이고,²⁵⁾ 김영운(金英雲) 교수의 논문은 서울 소재 한국국악학회(韓國國樂學會)의 『한국음악연구』(韓國音樂研究)에 발표한 글이다.²⁶⁾ 상기 문제점을 수정한 모범답안을 아래의 <보기 4>에 제시하였다.

- <보기 4-1> 金聖惠. “三國時代 新羅音樂文化史 研究.” 釜山: 東亞大學校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 <보기 4-2> 김영운. “여창 가곡의 발전과정에 대한 고찰.” 『韓國音樂研究』(서울: 韓國國樂學會, 2001), 제29집, 121-70쪽.
- <보기 4-3> 李惠求. “安岳 第三號墳의 奏樂圖.” 『韓國音樂序說』(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2), 1-31쪽.
- <보기 4-4> 張師勛. “步虛子論攷.” 『國樂論攷』(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71), 3-48쪽.
- <보기 4-5> 황준연. “『樂學軌範』의 향악조.” 『韓國音樂史學報』(慶山: 韓國音樂史學會, 1993), 제11집, 425-40쪽.

24) 李惠求, “安岳 第三號墳의 奏樂圖,” 『震檀學報』 23 (서울: 震檀學會 1962), 5-31. 저자의 『韓國音樂序說』(1967), 1-3에 복간됨; 張師勛, “步虛子論攷,” 『崔鉉培先生還甲記念論文集』(서울: 崔鉉培先生還甲記念論文集刊行會, 1954), 323-82. 저자의 『國樂論攷』(1966), 3-48에 복간됨. 두 논문의 해제는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성남: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81), 95(李惠求)의 541항 및 105(張師勛)의 604항 참조.

25) 황준연, “『樂學軌範』의 향악조,” 『韓國音樂史學報』 11 (慶山: 韓國音樂史學會, 1993), 425-40. 이 논문의 해제 및 출판정보는 宋芳松·金聖惠·高正閔, 『韓國音樂學論著解題 2: 1980~1995』(서울: 民俗苑, 2000), 472의 5493항 참조.

26) 이 논문의 해제 및 출판정보는 宋芳松·金聖惠, 『韓國音樂學論著解題 4: 2001~2004』(서울: 민속원, 2007), 89의 1116항 참조.

<보기 4-2, 5>에서 쪽수 표기 때 뒤쪽의 백 단위를 생략하는 것이 국제관례인 까닭은 시간과 노력 및 지면의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이다. 뒤 쪽수는 십 단위까지 쓰는 것이 국제관례의 원칙이다. 단 예외적으로 십 단위가 0일 경우에는 백 단위까지 써야 한다. 가령 105-120쪽의 경우 105-20쪽이 아니라 105-120쪽이 옳다. 그리고 백 단위의 쪽수 표시 때 십 단위를 생략하는 경우도 틀린 표기법이다. 예컨대, 115-119쪽의 경우 115-9쪽은 틀리고, 115-19쪽이 올바른 쪽수표기이다. 천 단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보기를 들면, 1102-1109쪽의 경우 1102-9쪽과 1102-09쪽은 모두 틀리고, 1102-109쪽이 옳다.

아래의 <사례 5-1, 2>에서 첫째 문제는 외국논문의 번역과 관련된 것이고, 둘째는 지방에 근거를 둔 음악학술지의 출판지명을 생략한 문제이며, 셋째 문제는 시작 쪽과 끝 쪽의 생략 것, 이상 세 가지이다. 이 세 문제를 거론한 후, 외국인명의 표기법 및 외국대학교의 출판지명을 생략한 문제를 아래 <사례 5>의 두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련다.

<사례 5-1> Geneviève Doumon, 박미경 역, 『악기학』 『음악과 문화』 제5권, 세계음악학회, 2001.

<사례 5-2> Jonathan Condit, “Two Song-Dynasty Chinese Tunes Preserved in Korea,” *Music and Tradition: Essays on Asia and other Musics*, Presented to Laurence Picke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역자명의 뒤에 외국 저자명을 괄호 속에 넣는다고 앞서 설명했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명(啓明)대학교 소속 박미경(朴美瓊) 교수가 운영하는 세계음악학회(世界音樂學會)의 소재지는 서울이 아닌 대구(大邱)에 있다고 아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 『음악과 문화』의 출판지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외국음악학자의 경우에는 더욱 알기 어렵다. 단행본이나 학술지의 출판지명을 표시하도록 국제규칙을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나단 콘디트의 경우 Jonathan Condit의 표기 순서가 각주에서는 맞지만, 참고문헌에서는 Condit, Jonathan의 순서로 기재되어야 한다고 앞서 지적했으므로 생각한다. 여기서 캠브리지(Cambridge)대학교출판부는 미국의 매사츄세츠(Massachusetts) 주에 있는 캠브리지가 아니라 영국의 캠브리지에 있다. 대학출판부의 소재지 생략은 서구학술계의 국제관례에 어긋나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이제 모범답안을 제시하면 다음의 <보기 5>와 같다.

<보기 5-1> 박미경 역(Geneviève Doumon 씀). “악기학.” 『음악과 문화』(대구: 세계음악학회, 2001), 제5권, 199-243쪽.

<보기 5-2> Condit, Jonathan. “Two Song-Dynasty Chinese Tunes Preserved in Korea.” *Music and Tradition: Essays on Asian and Other Musics, Presented to Laurence Picke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1-39.

참고문헌에 포함된 박사학위논문은 본문의 서술과정에서 참고한 것만을 김우진 교수가 기재한 것으로 이 서평자는 이해하였다. 예컨대,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166쪽의 각주 9(이하 166n9)에 나오는 강정미의 석사학위논문은 참고문헌의 322쪽에 포함됐고, 167n10에서 참고했다는 조석연(趙石娟)의 박사학위논문을 326쪽의 참고문헌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일관성(consistency)의 관점에 의거하건대, <부록 1>에 포함시킨 전국 대학교의 박사학위논문들을 김우진 교수가 참고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각 박사논문의 방법론을 소개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떠오른다. 만약 저자가 부록 1의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했다면, 참고한 박사논문을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일관성이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가령 권오성(權五聖) 교수의 박사학위논문: “『吳熹常琴譜』의 步虛子考”(253쪽)에 나오는 연구방법론은 참고문헌의 323쪽에 기재한 『국악

교육』에 발표한 동일인의 논문: “상여소리의 음악적 특징”의 것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남상숙(南相淑) 박사의 학위논문 “『악학궤범』의 鄉樂七調 연구”(260쪽)에 나오는 연구방법론이 참고문헌의 323쪽에 포함시킨 그녀의 석사학위논문: “『악학궤범』 소재 율장의 문제점 및 율산에 관한 연구”의 것보다 중요하다고 이 서평자는 생각한다. 이숙희(李淑姬), 전인평(全仁平), 최진, 황준연(黃俊淵) 등의 박사학위논문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각주 형식 및 참고문헌 형식 관련 국제규칙을 소개한 이 서평자의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서울: 음악춘추사, 1994)에 나오는 여러 사례를 김우진 교수가 좀 더 주목했다면 상기한 여러 지적사항이나 문제점을 피해갈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아쉬운 마음을 떨쳐버리기 어려웠다.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저자를 비롯한 후학들에게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편찬할 때 각주 형식이나 참고문헌 형식 등을 이 서평자가 만든 규칙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고, 미국의 동양학계 및 음악학계,²⁷⁾ 그리고 한국학계에서 통용되는 참고서²⁸⁾에 바탕을 두었다는 사실이다.

27) Ruth T. Watanabe, *Introduction to Music Research*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Inc., 1967); Demar Irvine, *Writing about Music: A Style Book for Report and These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8) 등. 그리고 서평자가 참고한 각주형식 및 참고문헌형식 관련 책이나 글은 Kate L. Turabian, *A Manual for Writers of Term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MLA Style Sheet* (New York: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1970); "Stylesheet,"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Cambridge, Mass.: Harvard-Yenching Institute, 1968), 195-205에 발표된 글임.

28) 『연구와 논문』 (서울: 이화여대출판부, 1977); 黃璟植, 『論文作成의 要領과 實際』 (서울: 志學社, 1976) 등임.

3) 찾아보기에서 수정되어야 할 여러 고려사항들

일관성(consistency)의 견지에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 찾아보기의 항목을 조명해볼 때, 이 서평자의 눈에 잡힌 문제점은 먼저 인명에서 발견되었다. <부록 1>에 소개한 전국 대학교의 박사학위논문을 참고문헌에서 제외시킨 것을 문제라고 앞 소항목 2)에서 지적했으므로 반복하지 않는다. 다만 찾아보기에서 발견되는 인명 관련 문제를 여기서 지적하려고 한다.

먼저 인명 중 이 서평자의 이름 송방송(宋芳松)이 175쪽에 나온다고 찾아보기의 332쪽에 적었기 때문에, 점검해보니 본문에 나오는 이름만을 항목으로 선정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런데 <부록 1>에 포함시킨 전국 대학교 출신 박사학위논문의 저자명을 김우진 교수가 제외시키지 말았어야 옳다. 왜냐하면 그가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펴낼 때, 본문의 각주 및 <부록 1>의 박사학위논문을 참고했음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저자가 참고했음을 부정할 수 없다면, 아래의 인명을 모두 포함시켜야 이 단행본의 일관성에 부합하고, 이 단행본의 가치를 한 차원 높일 수 있다.

서울대학교(214-52쪽) 출신의 강춘화·고수영·곽수은·김인숙·김중수·김준영·김지윤·김창곤·노은아·박세연·박은옥·손인애·송은도·송지원·신은주·신현남·여수연·윤아영·이성초·이소영·이수진·이슬기·이유나·이정희·이종찬·이훈·임혜정·장휘주·조경선·조수현·최희연;

성균관대학교(235-42쪽) 출신의 권혜근·김성경·박상진·변종혁·서승미·양승희·윤병천·정화순·조유미·조유희·최종민·한명희·홍종진;

이화여자대학교(242-52쪽) 출신의 박사들: 권인옥·권하경·기숙희·김남은·김선옥·김일륜·김정림·류정연·류지연·박혜진·박희전·변제남·송은주·안재숙·양경숙·이선희·이지영·채수정·최명화·최은주·최진·한서영·홍주희;

한국학중앙연구원(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52-70쪽) 출신의 강연회·권오성·김민수·김수현·김예풍·김은자·김인숙·김혜숙·김혜정·남상숙·문숙희·문재숙·문현·박혜정·반혜성·배인교·서인화·성영애·송혜진·신대철·양옥경·이소영·이숙희·이윤정·장희선·전인평·전지영·정경란·최난경·황준연;

한양대학교(270-82쪽) 출신의 강영애·김경아·김성진·김세중·김진경·도경태·박소현·박정미·박치완·박희정·사주현·서정민·안승훈·오경희·유영주·윤소희·이수진·이재화(보현)·이대백·이정현·이주은·임병옥·전진아·차형석·한영숙·현경채·홍주희;

그리고 기타(283-304쪽)의 강혜인(동아대)·권태욱(영남대)·김미나(단국대)·김영옥(영남대)·김효선(단국대)·류경호(전북대)·문주석(영남대)·박범훈(동국대)·박주만(단국대)·박주희(계명대)·방승환(?)·배연형(동국대)·변성금(한국외국어대)·서정매(부산대)·서한범(고려대)·시지은(경기대)·신영순(계명대)·안성우(한국외국어대)·양미지(중앙대)·유선미(한국교원대)·윤명원(고려대)·윤영애(단국대)·이경자(대구효성가톨릭대)·이동복(대구가톨릭대)·이종미(단국대)·이현주(영남대)·이현창(계명대)·임수철(강원대)·임진옥(고려대)·조보연(원광대)·조영규(연세대)·정자경(조선대)·최성령(단국대)·하경미(단국대)·하선영(전남대)·한서형(고려대)·한윤이(한국교원대)·허희성(영남대)·홍은주(단국대)가 그들이다.

학술연구서의 찾아보기에 포함되는 항목은 대체로 인명·책명·술어명·기타로 구성된다. 그런데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찾아보기에 논문명을 함께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찾아보기 328쪽 소재 “가거도 멀치잡이 뱃노래의 민속지”라는 나승만의 논문은 101쪽의 각주 44(101n44)에 나오는 것이고, 같은 쪽의 “가곡 연창형식의 전개양상 연구”는 81(82n10)쪽에 나오는 김영운 교수의 박사학위논문이다. 이 두 논문명을 보면, 본문의 서술과정에서 저자가 인용한 각주의 논문만을

포함했음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162n17에 나오는 이보형(李輔亨) 선생의 수많은 논문들이 어째서 찾아보기에서 제외됐는지 의문으로 남는다. 이와 비슷한 또 다른 의문은 김성혜 박사의 여러 논문을 나열한 173n26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에서 자주 인용된 이 서평자의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17n2, 57n21 등) 및 『한국음악사연구』(17n4, 163n2, 175n28, 176n29 등)를 찾아보기에서 제외시킨 까닭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다. 이제 본문의 각주에서 언급된 논문이나 책들이 찾아보기에서 빠진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찾아보기에 첨가시켜야 할 논문 및 단행본 목록

출처	인명	논문명 또는 책명
17n2, 57n2	송방송	『음악연구 어떻게 하는 것인가』
17n4, 163n2, 175n28, 176n29	송방송	『한국음악사연구』
55n18	이상규	“국악기 구음법의 사적 고찰”
97n39	정재철	『문화연구의 핵심개념』
100n43	성충호	“상업계 남자고등학교 학생문화에 관한 민속지적 연구”
114n17	조옥선	“가곡의 노래선율과 현악기 반주선율의 비교연구”
115n20	안정희	“가곡선율과 거문고의 반주선율에 대한 비교연구”
118n25	최헌	“만대엽의 선율구조 분석”
120n30	오용록	“상여소리를 통해본 노래의 성성”
121n35	오용록	“가야금산조영 음군”
125n41	김경희	“동초제 〈춘향가〉 연구”
137n66	송주현	“허용업의 해금 풍류 연구”
142n75	김영운	“경기12잡가의 음조직 연구”
152n10	권보나	“감로탕에 나타난 사당패 연구”

출처	인명	논문명 또는 책명
158n5	이보형	“중중모리 ‘달고 밋기’와 진양 ‘기경결해’의 의미 및 생성 연구”
162n17	이보형	“전통음악의 박, 분박의 변화에 대한 고찰” 등등
172n23	이보형	“한국악기의 확대현상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
173n24	이보형	“韓國과 中國에서 臥箏篋(거문고)類와 琵琶類의 傳承과 變化에 대한 考古學的 考察”
173n26	김성혜	“삼국시대 신라음악문화사 연구” 등등
180n7	장사훈	“가곡의 연구”
187n17	김우진	『거문고 산조』
187n19	김애라	“한범수류 해금산조의 종지형과 내드름의 유형”
187n20	이보형	“판소리 내드름이 지시하는 장단 리듬 통사 의미론”
205n49	오연경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기경결해’ 연구”
205n50	신호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반주법 연구”

다음으로 찾아보기에서 수정되어야 문제는 찾아보기의 쪽수와 본문의 각주에 나오는 쪽수가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예컨대 <표 2>의 둘째 사례인 문숙희(文淑姬) 박사의 석사학위논문: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이 나오는 본문의 쪽수는 51쪽의 각주 10(51n10)이다. 그렇지만 찾아보기의 328쪽에 가보면 50쪽에 나온다고 되어 있다. 대부분의 잘못된 한 페이지(page)의 차이임을 감안할 때, 아마도 그런 착오는 저자가 아닌 출판사의 탓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잘못된 이런 사례를 알기 쉽게 정리하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수정해야 할 찾아보기의 잘못된 쪽수 일람표

필자명	논문명 또는 책명	틀린 쪽수	수정한 쪽수
-	『음악대사전』	-	33n15
문숙희	“가야금산조의 긴장과 이완”	50, 194	51n10, 193n32
이숙희	“『악학궤범』 속악7조 기본음(궁)의 성립 배경”	52	53n15
김성혜	“삼국시대 신라음악문화사 연구”	63	64n2
한만영	“태백산맥 이동지방의 민요선법”	66	67n5
김영운	“가곡 연창형식의 전개양상 연구”	81	82n10
임미선	“朝鮮朝 殿庭軒架의 文獻的 研究”	82	83n12
최선아	“조선후기 금론(琴論) 연구”	83	84n13
이동복	“한국고악보의 서지학적 연구”	85	86n16
한기복	“고려시대 도자기 장구에 관한 연구”	88	89n21
조경자	“도상학적 방법에 의한 한국 가무백희 연구”	88	90n22
변성금	“거문고산조의 연주양식에 관한 연구”	107	108n6
홍은주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국악교육 프로그램 운영 연구”	130	132n57
한만영	“조선조 초기의 가곡에 대한 연구”	133	134n61
백대웅	『전통음악의 랑그와 빠홀』	149	150n4
백대웅	『인간과 음악』	150	151n8
문숙희	“려말선초 시가의 음악형식 연구”	155	157n2
남상숙	“『악학궤범』 소재 율장의 문제점 및 율산에 관한 연구”	167	168n11
최선아	“『漁隱譜』의 체제와 편찬에 관한 연구”	174	175n27
전인평	“가곡의 대어음에 관한 연구”	177	178n2
권다혜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中 자진모리 선율에 관한 연구”	194	196n35
김은정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가락유형 분석 연구”	194	199n43
최진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에 관한 연구”	203	202n46
이은영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진양조의 선율과 호흡”	194	203n47
최유정	“강해홍류 가야금산조의 선율에 따른 기·경·결·해 연구”	203	204n48
박희순	“판소리 진양조장단의 24박론 연구”	207	208n55
권연수	“판소리 진양조와 세마치장단의 비교 연구”	209	210n57

찾아보기의 인명 논의 때 지적했듯이 김우진 교수가 <부록 1> 소재의 수많은 박사학위논문들을 참고하지 않았다면 모르겠지만, 참고했음을 인정한다면 그 박사논문의 제목을 찾아보기에 넣었어야 순리적이다.

색인의 분량이 너무 많을 경우 인명색인과 술어색인 또는 책명색인을 구분해서 만들 수 있다. 만약 너무 많은 분량의 박사논문이라 찾아보기에서 제외시켰다면, 별도의 찾아보기를 만들 수 있음에 주목하기 바란다. 즉 너무 많은 인명·책명·용어를 하나의 찾아보기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워 이 서평자가 술어색인 또는 주제색인·인명색인·책명색인·논문색인으로 세분하여 작성한 사례²⁹⁾가 있었으므로 김우진 교수에게 참고하도록 권한다.

만약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재판 때 논문명을 찾아보기에 넣을 것이라면, 각주가 나오는 쪽수만 표기하지 말고 각주의 숫자도 더불어 표기하도록 당부한다. 즉 상기 나승만의 논문 경우 101쪽 대신에 101쪽의 각주 44라는 의미가 포함된 101n44로 표기하라는 권고가 그것이다.³⁰⁾

4) 기타 고려사항

김우진 교수 또는 출판사의 착오로 비롯된 옥에 티로 보이지만, 모두 수정하면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은 학술적으로 높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 아래에 제시한다. 다음의 지적사항은 어디까지 이 서평자의 눈에 잡힌 것만임을 밝힌다.

29) 宋芳松, 『韓國音樂學論著解題』(1981), 295-317(主題索引), 319-32(人名索引), 333-43(書名索引), 345-58(論文索引); 그리고 『韓國音樂史研究』(1982), 825-41(術語索引), 842-51(人名索引), 852-63(冊名索引) 참조.

30) 宋芳松, 『韓國音樂史研究』(1982), 825-41쪽(術語索引), 852-63쪽(冊名索引) 및 宋芳松, 『韓國古代音樂史研究』(서울: 一志社, 1985)의 索引 중 『感恩寺址發掘調查報告書』 등 참조.

김성혜 박사의 학위논문명이 이 단행본의 찾아보기(331쪽)에 63쪽만 표기됐지만, 173n26에도 나온다. 그리고 김은정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가락유형 분석 연구”는 203쪽에 나온다고 찾아보기의 334쪽에 기재됐지만, 203쪽에서 그 논문을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최진의 “최옥삼류 가야금산조에 관한 연구”도 204쪽에 없었고, 박희순의 “판소리 진양조 장단의 24박론 연구”를 160쪽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Bruno nettl(136n65)은 Bruno Nettle로 수정되어야 하고, 141n72에 나오는 1973~5년의 연도표시는 1973~75년으로 수정해야 옳다. 국제관례를 따르자면 1975년을 nineteen seventy-five로 나누어 읽지, one thousand nine hundred seventy-five로 읽지 않는다. 또한 천 단위의 연도 또는 쪽수표시 때 십 단위까지 표시하는 것이 국제관례임에 주목하자.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따르면 동격의 보통명사로 구성된 고유명사, 예컨대 서울대학교나 한국예술종합학교를 한 단어의 고유명사로 쓰지 날개 낱말로 띄어 쓰지 않는다. 만약 서울 대학교 또는 한국 예술 종합 학교로 표기했다면, 그것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어긋난다. 이렇듯 학술서에서 자주 반복되는 복합용어는 붙여서 사용하도록 권고한다. 그 까닭은 복합용어를 날개 말로 띄어쓰는 것은 한글맞춤법 통일안에 어긋나거니와, 단어 사이의 공간이 산만감(散漫感)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인용 1, 2, 3>에 나오는 ‘연구 방법’보다는 ‘연구방법’이 한글맞춤법 통일안에도 부합하고, 또한 보기에도 깔끔하고 콤팩트(compact) 즉 간결(簡潔)하다. 현지 조사(사례 4>)는 현지조사가 좋고,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산조로 표기하도록 권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맺는말: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훌륭한 연구성과에 주목하자

“잘못을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 특히 잘못인줄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잘못”이라는 공자(孔子)의 경고(警告)가 있다. 이 서평자는 이런 경고를 늘 상기하면서 재직시절 제자들에게 본인의 평소 생각, 곧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정말 부끄러운 일은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위선(僞善)이다”라고 가르쳤다. 한국음악학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음악학계의 잘못이나 위선으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는 생각 아래 마련한 본 서평에서 지적한 옥에 티를 김우진 교수가 수정하고 보완하리라고 믿는다.

지난 여름 충북 제천시 청풍(淸風)리조트에서 열린 충북향토문화연구소(忠北鄕土文化研究所) 주최, 내제문화연구회(奈堤文化研究會) 주관의 제27회 충북향토문화 학술대회: 『忠北의 傳統音樂』 학술대회 때 이 서평자는 우륵(于勒) 및 『악학궤범』 소재 청풍체(淸風體) 하림조(河臨調) 관련 본인의 수정한 논문³¹⁾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학술대회의 뒷풀이장에서 만난 한국공연문화학회장이자 세명(世明)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의 이창식(李昌植) 교수와 나누었던 이런 대화가 떠오른다. 즉 “학계의 새로운 학설을 수용하여 자신의 논문을 과감히 수정한 송방송 교수님의 학자적 솔직함에 놀랐다”고 말하기에 “권위는 남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권위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대답해주었던 기억이

31) 2015년 8월 12일 이번 학술대회 때 발표한 이 서평자의 논문은 “충북 전통음악의 뿌리 찾기 관련 학설의 재조명: 于勒의 고향 省熱縣 및 娘城과 河臨宮을 중심으로,” 『忠北의 傳統音樂』(堤川: 奈堤文化研究會, 2015), 1-16에 수록됨. 이 논문에서 南相淑 박사의 논문 및 鄕土史學者 柳今烈 편저의 『淸風 省熱縣人 樂聖 于勒의 史料集成』(堤川: 奈堤文化研究會, 2013)에 의거하여 영남대 재직 때 『大丘史學』 19 (大邱: 大丘史學會, 1982)에 발표한 “鄕樂 河臨調의 音樂史學的 考察”의 잘못을 두 자료에 의거하여 수정함.

그것이다.

1990년대 초부터 정문연(精文研: 현 한중연) 한국학대학원 및 서울대 대학원 출신의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할 때마다 이 서평자는 이번 서평처럼 심사평을 작성하여 당사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나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펴낸 김우진 교수의 박사학위청구논문을 이 서평자는 심사할 기회가 없었다. 그러므로 그의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평을 작성하는 입장에서 마련한 본 서평을 저자가 참고하여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국제학술올림픽에 출품할 수 있도록 노력하리라고 기대한다.

이번 서평도 주례사식(主禮辭式) 평론으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국제학술올림픽 출품의 목표라는 전제 아래 이 서평자가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는지 모르겠다. ‘사랑의 매’ 또는 ‘몸에 좋다는 ‘쓴 약’ 관련 옛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선두주자인 김우진 교수를 정중지와(井中之蛙), 곧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로부터 해방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서평에 임한 이 서평자의 과한 욕심을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저자는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믿는다.

비록 저자 또는 출판사의 잘못으로 생긴 옥에 티를 지적했지만, 그것이 결코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의 뛰어난 독창성을 결코 훼손하지 못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서평자가 독파하면서 많이 배우고 깨우침을 얻었듯이, 한국음악학의 전공자들도 읽고 나면 이 단행본의 독창성에 모두 동감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제3·4대들의 필독서이자 연구초보자의 훌륭한 지침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은 전국 대학교의 도서관을 비롯하여 음악 전공자들의 서가(書架)에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우수도서라고 강력히 추천한다. 맺는말의 제목을 “한국음악학 제3세대의 훌륭한 연구성과에 주목하자”라고 붙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음악학 연구방법론』을 펴내느라고 고생한 김우진 교수의 노고에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와 경축하는 뜻을 보내면서 이만 필을 놓는다.